

인도, 2025년까지 국방 생산 250억 달러 목표

101가지 수입 금지 품목 선정하고 자국산 도입 늘리기로



인도 힌두스탄 항공이 개발한 경전투헬기 LCH. 출처 힌두스탄항공

매년 많은 예산을 무기 도입에 지출하고 있는 인도가 자국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새로운 정책 초안을 발표했다. 인도 정부는 2025년까지 국방 생산을 250억 달러로 늘릴 예정이며, 이를 위해 101가지 수입 금지 품목도 정하고 있다. 미 육군은 M2 브래들리 보병전투차 대체 사업을 다시 시작했고, 미 해병대는 오키나와에 대함미사일로 무장한 부대를 배치하기 위해 일본과 협의를 시작했다. 캐나다의 노후한 CF-18 전투기 대체를 위한 새로운 전투기 88대 도입 사업은 미국과 스웨덴의 3개 업체가 경쟁하게 되었다. 지난 한 달간 세계 각국의 방위산업 및 군사 소식을 소개한다.

최현호 군사커뮤니티 밀리돔 운영자 / 군사 칼럼니스트

인도, 국방 생산 및 수출촉진 정책 초안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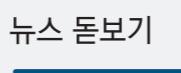
8월 초, 인도 정부가 2025년까지 수출 50억 달러를 포함하여 국방 생산 목표를 250억 달러로 정하는 국방 생산 및 수출촉진정책(DPEPP) 2020이라는 새로운 정책 초안을 발표했다. DPEPP의 목적은 역동적이며, 경쟁력 있는 방위산업으로 발전시켜 무기와 플랫폼의 국내 생산을 강화하는 것이다.

DPEPP는 자립과 수출을 위한 국방 생산 능력에 집중적이고 강력한 추진력을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지침으로 간주될 것이다. 국방부에 장갑차, 잠수함, 전투기, 헬기, 그리

고 레이더와 같은 주요 시스템을 제작하기 위한 조립 라인을 설계, 개발, 생산할 수 있는 산업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기술 평가 조직이 설치된다.

인도 국방부는 DPEPP를 지원하기 위해 101가지 수입 금지 군사장비 목록을 발표했다. 수입 금지 조치는 2020년에서 2024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인도 국방부는 앞으로 6~7년 안에 자국 방위업체들과 약 533억 5000만 달러의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하지만 DPEPP에 대해서 회의적인 의견도 나오고 있다. 전 인도 국방부 회득 관련 금융 자문은 DPEPP가 홍보에



뉴스 돋보기

해외원장비제작업체(OEM)는 이번 DPEPP와 101가지 수입 금지 목록 발표의 악영향에서 벗어나기 위해 인도 업체와 기술이전 또는 협력 등을 통해 인도 국방부의 도입 사업에 계속 참여할 수 있다. 한 관계자는 수입 금지 품목이 인도에서 설계되고 개발되는 한 합작법인에 의해 만들어지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해외 OEM들은 인도에서 합작법인의 지분을 최대 74%까지 보유할 수 있다. 인도 국방부 관계자는 합작법인들은 인도 기업으로 간주되어 수입 금지 품목을 인도에서 제작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설명했다.

비해 별 내용이 없다고 평가절하했다. 그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세계적인 확산으로 인한 암울한 재정 현실을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인도가 생산적인 방위산업을 육성하는 것은 정부가 국내 시장에서 얼마나 구매할 수 있는지와 현지 조달에 얼마나 많은 돈을 할당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주장했다.

힌두스탄항공(HAL)의 전 연구개발책임자도 무기와 플랫폼 구입 예산에서 인도 제품에 대한 배분을 두 배로 늘린다면 250억 달러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인도군이 많은 수의 자국산 무기를 배치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하고, 국방부의 관료주의적 절차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군의 무기 요구조건이 국산화 노력에 인질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미 해병대, 일본과 오키나와 주둔 미 해병대 재편 논의

7월 말, 미 해병대 사령관 데이비드 버거 장군이 미국과 일본이 대함미사일과 대공방어 미사일을 갖춘 미 해병대를 오키나와에 배치하는 것을 협의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사령관은 오키나와는 중국의 태평양 접근을 막는 위치에 있어 일본과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령관은 기자들에게 자신들은 잠재적인 적들이 다음 행동을 취하지 못하도록 단념하게 만들고 싶다고 말하고, 중국은 미국과 일본의 바위처럼 단단한 동맹을 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0년 3월, 사령관은 전차를 없애고, 항공기와 대포를 줄이며, 미사일과 드론으로 무장하고, 잠

재적인 적들의 해군 함정과 항공기들을 위협하여 경쟁 지역에서 적대적인 통제를 거부할 수 있는 해병대연안연대(Marine Littoral Regiment)를 만드는 포스 디자인(Force Design) 2030을 발표했었다.

사령관은 미 해병대가 2027년까지 오키나와에 작전 준비가 된 연안연대를 가질 것이며, 괌 인근에 두 번째 부대가, 그리고 하와이에 세 번째 부대가 주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오키나와에 주둔하는 병력 숫자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며, 현재 일본과의 미국의 군사 동맹의 조건 안에서 수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령관은 자신의 전략이 강대국 간 경쟁과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새로운 집중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국 정부는 자신들은 이 지역에 대해 평화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미국이 아시아 국가들 사이를 갈라놓으려 한다고 비난하고 있다.

미 육군, 브래들리 보병전투차 교체 사업 다시 시작



미 육군 GVSC가 연구하고 있는 첨단 구동기어 ARG 시험 차량. 출처 미 육군/Marc Schaefer

7월 중순, 미 육군이 M2 브래들리 보병전투차(IFV) 대체를 위한 선택적 유인 전투차량(OMFV) 사업의 첫 단계로 예비 설계 단계를 위한 초기 제안요청(RFP)을 발표했다. 이번 초기 RFP는 미 육군 OMFV 사업의 5단계 접근법의 첫 단계다. 이번 초기 RFP는 올해 말에 나올 최종 RFP를 앞두고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목표로 40일간 열린다. 최종 RFP를 통해 2021년 6월까지 최대 다섯 개의 설계 계약을 체결하여 다음 단계로 나갈 예정이다.

미 육군 미래사령부의 차세대 전투차량(NGCV) 교차기능팀(CFT) 책임자는 설계를 과도하게 구속하지 않으면서 원하



뉴스 돋보기

미 육군이 OMFV 사업을 다시 시작했지만, 미 의회 회계감사국(GAO)이 비용과 기술적 위험 등에 대해서 지적했다. GAO는 시스템 설계 성숙도와 관련된 위험을 효과적으로 완화하기 위한 자식의 수집 능력도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용 부분에서도 미 육군은 불확실성을 고려한 잠재적인 비용 범위 대신 프로그램 수명 주기에 대해 하나의 비용 추정치만 내놨다고 지적했다. 미 육군이 제출한 비용 추정치는 2019 회계연도 기준으로 약 460억 달러다.

는 기능들을 정확하게 정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책임자는 업계가 OMFV의 특성과 요구조건을 알 수 있도록 열린 대화를 약속했다.

미 육군은 이미 한 차례 OMFV 사업 경쟁을 치렀고, 2019년 10월에 요구조건과 일정의 우려를 이유로 다른 경쟁자들이 탈락하면서 제너럴 다이내믹스 랜드시스템(GDLS)의 한업체만 시제품 제작업체로 선정했다. 하지만 2020년 1월 더 많은 경쟁을 위해 사업을 다시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OMFV 사업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방위산업체들은 미 육군이 RFP에 미국 정부 기관이 주 제안자로 참여할 수 있다고 정한 것에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정부 기관이란 미 육군 전투능력개발사령부(CCDC) 산하로 미 육군의 첨단 지상장비 관련 기술을 연구하는 지상차량시스템센터(GVSC)를 말한다. GVSC는 브래들리 IFV를 이용한 첨단 구동기어(ARG, Advanced Running Gear) 등 다양한 지상 전투 시스템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캐나다 전투기 경쟁에 미국과 스웨덴의 3개 업체 경쟁

캐나다 공군의 노후한 CF-18 호넷 전투기를 대체할 신형 전투기 88대를 도입하기 위한 경쟁 입찰이 시작되었다. 이번 입찰에는 미국의 록히드마틴(F-35 JSF)과 보잉(F/A-18E/F 슈퍼호넷 블록 III), 그리고 스웨덴의 사브(그리펜 E)만 참여한다.

이들 업체만이 마감일인 7월 31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했다. 최종 승자는 2022년에 결정될 예정이며, 첫 항공기 인도는 2025년으로 예정되어 있다. 사업 규모는 최대 190억 캐나다 달러(미화 140억 달러)다.

캐나다 정부는 성명에서 2022년 단일 입찰자를 최종 선정할 때까지 3개 회사 모두를 옵션으로 유지할 수도 있지만, 초기 제안서 평가 후 2021년 봄에 2개 업체로 압축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참가 업체들은 산업 인센티브와 대응구매가 평가 대상 기준의 20%를 차지하기 때문에 캐나다 방위산업과 기타 기업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제안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안서는 각 항공기의 성능과 비용에 대해서도 평가해 각각 60%와 20%의 가중치가 있다.

캐나다는 F-35 프로그램의 파트너 국가로서 개발 자금을 지원했고, 생산에도 관여하고 있다. 록히드마틴은 F-35 프로그램이 캐나다에서 수명 주기 동안 약 15만 개의 일자리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잉은 캐나다 공군이 이미 F/A-18을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슈퍼 호넷 최신 버전을 구입하는 것이 기존 기반시설을 재사용하고, 유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입증된 경제적인 옵션이라고 밝혔다. 사브는 제안을 위해 CAE를 포함한 캐나다 방산업체들과 협력할 것이며, 산업 및 기술 혜택의 경쟁력 있는 패키지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015년부터 경쟁 참여 의사를 보이던 프랑스의 닷소는 2018년 11월 상호운용성과 정보공유의 조건이 너무 광범위하다는 이유로 경쟁 포기를 선언했고, 에어버스도 2019년 8월 참여를 포기했다.

미 인도-태평양 사령관, 괌에 이지스 어쇼어 설치 요청

7월 말,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의 필립 데이비스 사령관이 괌을 공중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360도 방어하는 것을 자신의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사령관은 기자들



루마니아 이지스 어쇼어. 출처 dla.mil/Navy Lt. Amy Forsythe



뉴스 돋보기

이지스 어쇼어는 유럽의 루마니아에서 2016년 5월부터 운용되고 있으며, 폴란드에서는 건설이 지연되어 2022년이나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은 2020년 6월에 도입 중단을 발표했지만, 전체 시스템을 해상 부유 플랫폼에 옮리거나, AN/SPY-7 레이더를 탑재한 레이더만 지상에 두고 SM-3 블록 IIA 요격 미사일은 구축함에 배치하는 방법 등을 고민하고 있다. 레이더와 미사일을 분리 배치하는 방법은 부스터 낙하 우려는 피할 수 있지만, 함정과 이지스 어쇼어 시설 사이에 데이터 연결이 끊기거나 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되고 있다.

에게 중국이나 북한에서 발사된 탄도미사일과 항공기, 선박 또는 잠수함에서 발사된 순항미사일은 미군을 위한 기지로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미국 영토 괌에 심각한 위협이라고 밝혔다.

사령관은 괌 방어를 위해 자신이 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치는 괌 국토방위시스템이라고 부르는 360도 통합 대공 방어능력을 배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배치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를 보완하기 위해 베이스라인 10 이지스 전투 시스템을 탑재한 이지스 어쇼어 시스템 배치를 지지했다.

사령관은 베이스라인 10 이지스 어쇼어를 주장하는 이유로, 2026년까지 인도될 수 있는 기술이고, 괌이 직면한 위협은 현재의 THAAD보다 훨씬 강력한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더해, 괌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360도 커버리지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령관은 해군 함정의 베이스라인 10 시스템이 다른 능력 세트와 연결되고 관여할 수 있는 것처럼, 이지스 어쇼어도 C5I(지휘, 통제, 통신, 컴퓨터, 사이버 및 정보)를 통해 단거리 방어인 PAC-3 같은 다른 능력도 연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령관은 2021 회계연도 예산에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만 2026년까지 괌에서 이지스 어쇼어가 가능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록히드마틴이 개발하고 있는 베이스라인 10 이지스 전투 시스템은 AN/SPY-6(V) 레이더와 함께 알레이버크 플라이트(Flight) III 구축함의 핵심 체계다. 미 해군은

2023년 초기 운용능력(IOC)을 선언할 예정이다.

싱가포르 ST 엔지니어링, 이스라엘과 대함미사일 개발 협력



2018년 12월 네타냐후 총리에게 공개된 가브리엘 V 대함미사일. 출처 이스라엘 총리실 유튜브 채널

7월 중순, 싱가포르의 ST 엔지니어링 지상 시스템 부문과 이스라엘의 IAI는 각각 50%씩 지분을 보유한 프로테우스 어드밴스드 시스템(Proteus Advanced Systems)이라는 합작 법인을 설립했다. 합작 법인은 차세대 대함미사일을 포함한 첨단 해군 미사일 시스템을 마케팅하고 판매할 예정이다. ST 엔지니어링은 새 합작 법인이 마케팅할 차세대 대함미사일은 지난 몇 년간 IAI와 협력하고 있는 블루 스피어(Blue Spear)라고 밝혔다. 대변인은 블루 스피어가 5세대 대함미사일이며, 현대 해군이 미래의 도전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진보된 접근법을 도입했다고 말했다. ST 엔지니어링은 부스터 모터와 탄두 같은 중요 하부 시스템의 설계, 개발 및 생산을 담당한다.

ST 엔지니어링은 블루 스피어 개발과 합작 법인 설립은 두 회사의 상업적 결정이며, 고객의 요구사항에 의해 추진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현재 싱가포르 해군은 1980년 대 초반 도입된 보잉 RGM-84C 하푼 대함미사일을 운용하고 있다. 하푼 대함미사일은 포미더블급 호위함과 빅토리급 초계함에 장착되었다. 싱가포르 해군은 2020년 대 중반부터 빅토리급 초계함 대체함을 도입할 예정으로, 새로 운 대함미사일 장착이 예상된다.

블루 스피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공개되지 않았다. 그러나 IAI는 2018년 현대적인 방어망을 돌파할 가브리엘(Gabriel) 대함미사일의 최신형인 가브리엘 V를 공개했고, 블루 스피어의 기반이 되었을 가능성성이 크다. ☎